

‘가뭄 광주’ 부주의·시설노후...사흘새 물 5만7180t 유출

12일 정수장 밸브고장, 수도물 5만7000t 유출

도시철도 공사중 상수도관 파손 180t 쏟아져

최악의 가뭄 속 광주에서 부주의와 시설 노후화로 사흘새 소중한 수도물 5만 7180t이 도

로 유출됐다. 14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동광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광구(남구청-양림휴먼시아)토목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손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굴착 장비가 지하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관 연결 부분을 파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손된 관에선 수도물이 시간당 60t씩 세 시간 동안 쏟아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 발생 시점부터 비상관로 개방과 수계조절을 통해 단수 없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구 작업은 이날 오후 4시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복구에 따른 수압변화로 주월동·진월동 등 일부지역 2800여 세대에 흐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12일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에서도 배수지로 물을 보내는 수도관 유출밸브가 노후화로 고장나 수도물 5만 7000t이 유출됐다. 광주시는 가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절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광주 식수원인 주암호의 저수율은 23%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승호기자

‘광주형일자리’ GGM 캐스퍼가 안 팔린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경차 ‘캐스퍼’ 판매가 지지부진하다. 판매량이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



14일 현대차 등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위탁으로 GGM이 생산 중인 캐스퍼의 지난해 누적 판매량은 4만8002대다. 11월 5573대로 월 판매량 기준 정점을 찍었지만, 12월 3509대로 다시 주저앉았다.

나면서 연간 10만대 정도로 추정되는 경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측면도 있다.

지난해 5만대를 생산했지만, 재고가 2000여대에 이른다. 추세대로라면 재고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캐스퍼 판매 저조는 대외적 여건에 따른 일시적 조정 국면이라는 분석이 우세

지난해 5만대 생산, 2000여대 재고, 올 1월 전년보다 22.3% 판매 감소
 고급리 등 여파 경차시장 위축 “내년 전기차 생산” 발표 · “기다리지”
 “일시적 조정 국면”...전기차 라인구축 올해도 4만5000대 생산 불가피

올들어 1월 한달 3070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12.5%, 지난해 1월 (3948대)과 비교하면 22.3% 감소한 것이다.

하다. 하지만 당분간 캐스퍼 생산량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스퍼 판매 부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경기침체 여파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급리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GM은 올해 목표 생산량을 작년보다 5000대 줄여든 4만5000대로 잡았다. 연말 1개월 정도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공장 가동을 잠시 멈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9월 GGM이 발표한 ‘2024년 전기차 생산’ 뉴스가 캐스퍼 판매에 일시적 약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스퍼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이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구매를 늦추면서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 가동까지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도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차량용 반도체 등 자동차 부품 수급 개선으로 인해 주춤했던 고급차 구매가 늘어

광주의 업계 관계자는 “캐스퍼 판매 부진은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부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와 혼류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요 및 공급 예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40만원 육박하는 도시가스 고지서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검침·청구가 진행중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도시가스 협력사에서 직원이 고지서 발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정원박람회 앞두고 차량 2부제 시행

성공개최 위한 독려...20일부터 순천시공무원·박람회조직위 출근수법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차량등록 대수가 10만 대에서 16만 대로 증가해 박람회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시는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 2

부제 실천 운동을 추진해 교통혼잡을 해소할 계획이다. 차량 2부제는 홀수날에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을, 짝수날에는 차량번호가 짝수인 차량을 운행하는 제도이다. 차량 2부제의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순천시청 공무원과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들부터 순선수법에 차량 2부제에 참여하며 공공기관·유관기관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정원박람회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의 차량 2부제에 대한 시민홍보와 실천 운동을 병행해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차량 2부제 시행으로 도심 내 교통량을 줄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시가 선진교통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제51회 흙·사람 그리고 불

강진청자축제

2023. 2. 23. 목 ~ 3. 1. 수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